

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
일본 수출규제 관련 관계장관회의



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방안

2019. 2. 17.



관계부처 합동

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방안 [요약]

① [긴급 피해지원] 긴급 금융지원 및 각종 사용료 납부 유예

- (긴급용자) 항공수요 위축, 예약취소·환불급증 등 매출이 급감한 항공사에 운영자금 긴급용자 지원(LCC 대상 최대 3천억원 규모)
- (운수권·슬롯유예) 중국노선 운항중단·감축 노선 미사용 운수권·슬롯 회수유예(2.5)하고 여행제한 지역에 따라 유예대상 확대
- (사용료·과징금 납부유예) 전년대비 여객감소 항공사에 최대 3개월간 공항시설사용료 납부유예(3월부터 적용, 3~5월분)
 - 항공사 신규 과징금 발생시 1년간 과징금 납부유예(즉시시행)
- (공항사용료·수수료 감면) 항공수요 미회복시 착륙료 10% 감면, 인천공항 조명료 등 사용료 감면 및 항공기 인증 수수료 감면 연장

② [신규시장 확보] 대체노선 발굴 및 신시장 개척 지원

- (운수권 배분 및 노선 다변화) 파리, 리스본 등 중장거리 운수권 배분(2월말), 베트남·라오스 등 중단거리 미취항 노선 개설 지원
- (해외항공시장 개척지원) 신시장 개척시 수요·시장성 조사 비용지원 등
- (적극행정) 사업계획 변경, 탄력적인 부정기편 등 신속·유연한 허가

③ [경영안정화] 항공수요 조기 회복 및 항공사 경쟁력 제고 지원

- (수요회복 착륙료 감면) 운항재개시 착륙료 증가분(약 20억원) 감면 검토
- (인천공항 슬롯 확대) 포화상태인 인천공항 슬롯을 시간당 65→70회 증대해 항공사의 신규취항·증편 지원(약 1만 6천편 증대 가능)
- (항공분야 리스보증금 지원) 항공기 리스 시 초기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리스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(Standby-LC) 지원
- (공공기관 경영평가 인센티브) C-19 대응으로 재무지표 하락시 감안·평가

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방안

1 피해현황

□ (여객수요) 코로나19 영향으로 한-중 노선(59개 노선)에 우리 항공사 운항횟수*는 77% 감소, 동남아 주요노선까지 수요위축 확산**

* 1월초 주546회 → 2월1주 주380회(△30%) → 2월3주 주126회(△77%)

** 2월들어 열흘간(2.1~2.10) 여객감소 : 중국 △64.2%, 동남아 △19.9%

○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항공여객 감소는 발병 3~4개월 후 여객감소로 이어졌던 사스(03), 메르스(15)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중

* ① (사스) '02.11월 국내발병 → '03.3월 △8.4%, ② (메르스) '15.5월 국내발병 → '15.6월 △12.1%, ③ (C-19)'20.1월 국내발병 → '20.2.1~10일 △32.2%(전년동기대비)

□ (취소·환불) 여행심리 위축으로 중국·동남아 등 항공권 예약취소·환불이 급증하여 최근 3주간 약 3천억원의 항공사 환불 발생*

* (1.26~2.12일) 대한항공 1,275억원, 아시아나 671억원, 제주항공 225억원, 진에어 290억원, 이스타 190억원, 에어서울 40억원, 티웨이 227억원 등

□ (화물피해) 중국발 인천공항 경유 미주·유럽·동남아행 항공화물 물동량이 급감하여 화물 간선 네트워크에 심각한 타격 우려

* 2.3~2.9, 대한항공 한-중 화물노선 운항 32% 감소, 특히 중국화물의 80%를 차지하는 환적화물(중국발→인천→미주/구주) 절반 감소(주간 4천 → 2천톤)

【 코로나19 영향 권역별 여객실적(전년 동기대비) (단위 : 명, %) 】

구분	일본	중국	동남아	기타아시아	미주	유럽	대양주	기타	합계
'19.12	1,160,695 △39.0	1,523,924 16.4	2,591,255 17.6	935,801 6.1	478,863 11.8	445,775 6.6	380,115 35.4	84,165 25.2	7,600,593 1.5
'20.1	1,192,070 △40.7	1,540,037 11.9	2,945,000 23.8	703,107 △23.7	497,168 9.8	494,293 4.3	410,264 26.0	99,568 18.7	7,881,507 △1.8
'20.2 1~10일	339,184 △6.0	162,498 △64.2	691,983 △19.9	143,552 △41.0	148,544 15.4	154,091 △2.1	106,132 △10.3	31,838 14.3	1,777,822 △32.2

☞ 1.20일, C-19 국내 첫 확진자 발생이후 2월 들어 급격히 여객실적 감소
2.1~10, 10일간 중국노선 △64.2%, 동남아 △19.9%, 전체노선 △32.2% 감소

- (영업전망) '19년 일본 수출제재, 보잉 737결함 등으로 3분기 연속 항공사 영업이익 적자*, 코로나19 영향으로 금년도 영업환경도 부정적

* '19년(잠정) 아시아나 △3,683, 제주항공 △348, 에어부산 △505 등

- 일본 제재이후 중국·동남아 운항에 주력*했던 LCC에 코로나19 영향으로 여객감소 지속시 연쇄적인 항공기 운항중단 우려

* LCC 보유 항공기 B737은 운항거리가 최대 동남아까지 운항가능(6시간 이내)

※ 우리 항공사의 운항 비중('19) : 일본(25%), 중국(16.8%), 동남아(32.4%), 미주(9.6%) 등

- 특히 항공업계 가장 큰 타격이 있었던 '01년 9·11 테러에 비해 항공시장 4배 이상 성장* 등을 감안시 코로나19 영향은 훨씬 클 전망

* ('01년 9·11 테러) 국제항공 여객 2,181만명 수준 → ('19년) 국제여객 9,030만명
('01년) 항공사 2개(대한, 아시아나) → ('20년) 10개사 운항(신생 2개사 운항준비중)

- (지역침체·안전) 지방공항을 베이스로 하는 지역 LCC 위기시 향후 인바운드 유치* 곤란 및 지역 일자리·경기침체 가속화될 우려

* 중국노선 비중 43%인 청주공항에 최근 전체 중국노선(10개) 운항중단 등

※ 【대통령 지시사항('20.12.13, 국가관광전략회의)】 방한 관광객 2천만명 시대 지방공항을 중심으로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

- 항공사 경영위기시 정비투자 감소로 이어져 항공안전도 위협, 연관업종(지상조업·관광·서비스 등) 전반으로 영향이 확산될 우려

- (업계요청) 항공업계는 매출급감 지속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금융지원 등 '01년 9·11테러대책*에 준하는 실효적인 정부 지원 요청**

* 긴급경영안정자금 25백억원 용자(대한항공 1,400억원, 아시아나 1,100억원)

** 항공사 CEO 간담회(2.10, 국토부 장관 주재, 대한항공, 제주항공 등 10社 참석)

⇒ 긴급피해 지원과 수요 조기회복 및 경영안정을 위한 대책 필요

1. 긴급 피해 지원

(국토부, 금융위, 기재부)

◆ 코로나19 영향 단항, 수요감축 등 항공업계 피해에 대응해 긴급 금융지원을 하고, 각종 사용료 납부유예 등 항공사 부담 완화

① (항공사 운영자금 긴급용자)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산업은행에서 대출 심사절차를 거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

○ LCC에 대하여 최대 3천억원 범위내에서 부족한 유동성을 적시 지원

② (운수권·슬롯 회수유예) 코로나19 영향 운항중단·감축한 노선의 경우에는 운수권·슬롯 미사용분 회수 유예조치(즉시시행)

* (현행) 운수권 연간 20주 미만, 슬롯 80% 미만 사용시 회수되어, 슬롯·운수권 유지 위해 감염병에도 운항 불가피 → (개선) '20년 한해 미회수

○ 여행자제(중수분 발표) 및 여객수요에 따라 유예 대상지역 확대

* 2.5일, 한-중 노선 미회수 결정 → 마카오, 싱가포르 등 필요시 지역 확대

③ (사용료·과징금 납부유예) 전년 동기대비 여객감소 항공사에 최대 3개월간 공항시설사용료 납부유예(3~5월분, COFIX 기준금리 연 1.6% 적용)

* (월평균 납부액) 대한항공 139억, 아시아나 71억, LCC 83억 / 국적사 293억

* (3개월 유예) 대한항공 417억, 아시아나 213억, LCC 249억 / 국적사 879억

○ 행정처분으로 항공사에 부과되는 신규 과징금 발생시(현재 분기별 1회 이상 행정처분 중) 1년간 과징금 납부유예(즉시시행)

* 최근 5년간 항공사 과징금 368억원 부과, '19년에는 61.25억원 부과

④ (공항사용료·수수료 감면) 상반기 중 항공수요 회복이 되지 않는 경우 6월부터 착륙료 10% 감면(약 58억원, 2개월 기준)

○ '항공산업경쟁력 강화 방안('19.12)'에 따라 현재 감면중('20년 약 300억)*인 인천공항 각종 사용료를 수요 미회복시 감면 연장('21년)

* 조명료(250억), 탑승동 탑승교 사용료(40억), 페리기(빈 항공기) 착륙료(2억)

○ 항공기에 대한 안전성 인증(감항증명), 수리·개조승인 신청시 항공기 증명·승인 수수료 50% 감면기간 2년 연장('20.6→'22.6)

2. 대체노선 및 신규시장 확보 지원

(국토부, 기재부)

◆ 코로나19 영향 위축된 중화권 노선을 대체할 신규시장 확보를 위해 운수권 배분·신규 노선발굴, 행정지원을 신속·유연하게 추진

① (운수권 배분 및 노선 다변화)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파리, 헝가리, 포르투갈, 인도 등 운수권 배분(2월말)

【 정기 배분대상 여객 운수권(잠정) ⇨ 증편 또는 신규취항 】

거리	장거리	중거리	단거리
신설/ 증편 취항지	프랑스(파리) 헝가리(부다페스트) 이집트(카이로) 포르투갈(리스본)	인도(뉴델리·뭄바이 등) 호주(시드니·멜버른 등) 키르기스스탄(비슈케크)	필리핀(마닐라) 중국(베이징 등) 팔라우

* 배분대상 중 대표적인 노선만 표기했으며, 운항사·배분횟수 등은 2월말 결정

○ 중단거리 대체노선 발굴 및 노선다변화를 위해 베트남 퀴논·라오스 팍세 등 미개척 노선 발굴, 현지 슬롯확보 등 지원

② (해외항공시장 개척지원) 신규 개척지 수요·시장성 등 타당성 조사·분석, 현지교섭, 항공당국 협력 지원 및 인바운드 수요창출 지원

* 정부인·아웃바운드 수요창출 전략연구+민간항공사 개척비용 지원+합동노선개척지원단 파견

③ (적극행정) 단항·운휴에 따라 항공사가 대체노선 개설 등을 위한 노선허가 당시 사업계획의 변경을 요청시 신속한 행정지원

* (현행) 항공협정 합치여부, 안전성, 이용자편의 등 고려 25일 기한 인가
→ (개선) 안전성 확보여부 검증외 기타 행정절차 최대한 단축지원

○ 하계스케줄(3월말), 여름 성수기 등 감안해 수요탄력적인 부정기편 운항이 가능토록 유연한 허가 및 상대국 슬롯 확보 지원

* 리스본, 오슬로 등 정기편 미개설 노선, 몽골·러시아 등 기존노선 임시증편 등

3. 항공수요 회복 및 안정적인 경영지원 (국토부, 금융위, 기재부)

◆ 코로나 19 종식시점에 항공수요 조기회복 및 안정적인 경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착륙료 감면, 슬롯확대, 항공기 보증 시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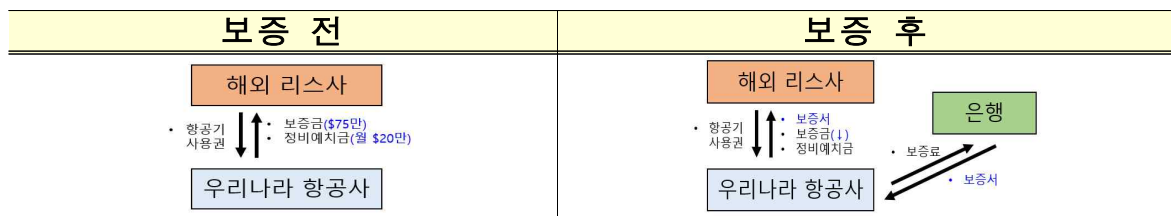
① (수요회복 착륙료 감면) 감편된 항공편을 향후 운항재개시 전월 대비 착륙료 증가분(약 20억원 추정) 감면 검토

② (인천공항 슬롯 확대) T2 등 시설확장(4.9조)에도 포화상태인 인천공항 슬롯을 시간당 65→70회 증대(법무부 출입국심사인력 증원시 시행)

* 인천공항 시간당 슬롯 5개 확대시 연간 항공편 약 1만 6천편 증대 가능

③ (항공기 리스보증금 지원) 항공기 리스 시 초기부담*을 완화할 수 있도록 리스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(Standby-LC) 지원

* (예시) B737 월 렌트로 30만\$, 보증금(렌트로 3개월치, 10억원 수준)을 납부
→ 동 보증금을 대체가능한 보증(Standby-LC) 지원



④ (공공기관 경영평가) 코로나19 대응 등 정부정책 추진으로 인한 재무지표 하락 등은 공기업 경영평가지 감안·평가